

평택청, '봄철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 충청남도 당진시 한진 어촌계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4월 23일 충청남도 당진시 한진 어촌계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봄철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와 함께 한진 어촌계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AI홍보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현장 어선 안전점검에서는 선박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무리한 조업 자제, 기상정보 주의, 안전설비 관리 철저 등 어선원 중대재해(양망기 끼임, 어구 타격 등)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봄철 해양안전 캠페인을 통해 관내 어촌계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해양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평택·당진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배순 (031-680-7220)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계 장	송광호 (031-680-7224)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주무관	김찬휘 (031-680-7297)